

가식없이 트인 구조역학



가람의 장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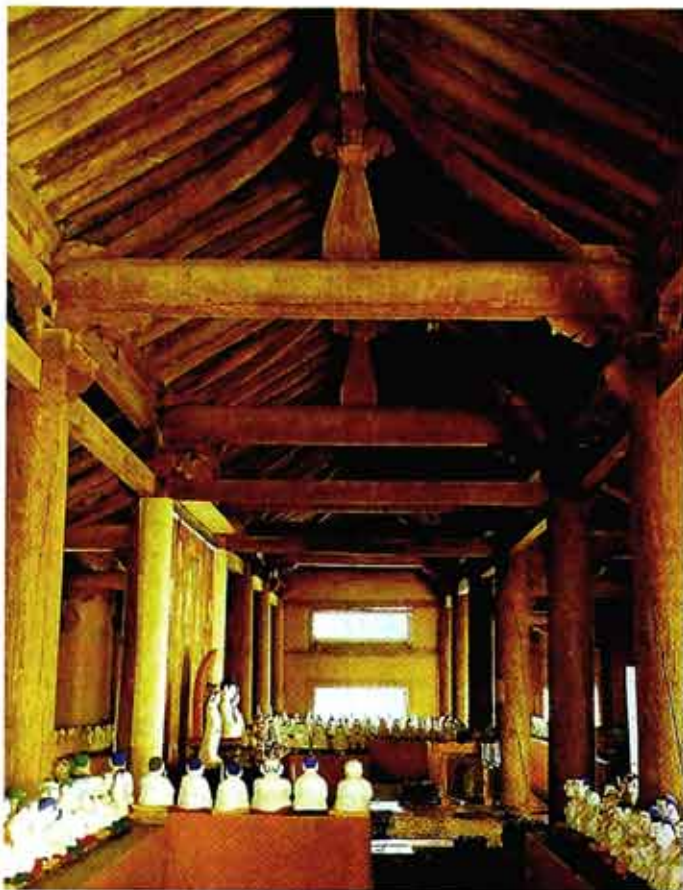
은혜사 거조암 영산전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에 있는 은혜사는 이 일대 수십개 사찰들의 본사이며, 팔공산 일대에 백층암 등 많은 암자를 거느린 큰 절이기도 하다. 청통면 신원동에 있는 거조암 역시 은혜사에 속한 암자지만 직선 거리가 4km 이상 떨어져 있고 입구도 아예 분절과는 달리 신령면에서 들어간다. 인근에도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영산전을 비롯한 건물도 3동밖에 없는 작고 한적한 절이다. 그러나 영산전은 고려말기, 적어도 조선초기의 건물로서 우리나라 목조건축물로는 매우 희귀한 모습을 보이는 귀중한 보물이다. 이 건물이 국보 14호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이도 많다.

한국 가람건축들은 내부공간보다도 외부공간이 더 짜임새있고 공간감있다고 인식돼 왔다. 건물들의 규모가 작고 하나의 방으로 돌린 단순한 구조에서 실내에는 별다른 공간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거조암 영산전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다. 이 절에는 커다란 영산전 건물만이 부각되어 다른 건물 사이의 마당이 형성되지 않고, 오히려 영산전 안의 거대한 높고 시원한 내부공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내부의 중앙 한칸에 작은 불단을 마련해 석가 삼존을 모시고, 주변에는 작고 소박한 500 나한상을 모셔 두었다. 내부공간에 별다른 장식은 없다. 배흘린 나무 기둥들과 서까래가 노출된 지붕틀, 그리고 기둥들과 지붕틀을 연결하는 단순하고 명쾌한 나무 부재들 뿐으로 모두가 구조적인 부분들이다. 일찍 불필요한 부재들은 없고, 단청도 되지 않은, 마치 뼈대들만 노출된



◇거조암 영산전(국보 14호)의 시원한 내부구조는 철치고 아름다운 공간감을 준다.

단청도 안하고 뼈대 노출 고려 건축 역동성 한눈에

생명체의 골격을 보는 것 같다. 단순한 듯하면서도 힘차고 박진감있는 아름다운 공간감을 형성한다.

이러한 아름다움을 건축에서는 구조미, 뼈대의 아름다움이라 부른다. 역학적으로 꼭 필요한 부재들만 이루어진, 기능적이고 수학적 구조. 그러나 구조 자체를 노출시킴으로써 미학적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경우를 일컫는 말이다. 구조미를 이루려면 매우 치밀한 절구기술이 요구된다. 구조 역학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과 여러 개의 부재들을 섬세하게 피맛추는 정성이 있어야 된다. 영산전의 내부공간이 주는 감동은 일체 가식없이 솔직하게 구조미를 노출시킨데서 기인한다. 이런 면에서 구조미는 윤리적인 아름다움이기도 하다.

고려시대의 건축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구조미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구조를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건물 전체를 마치 커다란 가구를 짜듯이 치밀하게 조립한다. 부석사 무량수전이나 수역사 대웅전에서 공예적인 아름다움이 솟아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영산한 지붕틀의 구조를 감추기 위해

천장을 띄우고, 화려하고 복잡한 단청문양들로 내부를 감싸는 조선시대의 불전들과는 발상이 다른 공간들이었다. 단순하고 소박한 듯 하지만, 고려 건축들은 적절한 비례와 섬세한 스케일로, 그리고 윤리적이고 역동적인 구조적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건장한 건축이었다. 그 대표적인 예를 거조암 영산전에서 본다.

고려시대에 지어진 건물로서 현존하는 것은 위 세 건물 예와, 성불사 응진전, 강릉 적사문 정도도 모두 끊어지고 손가락을 남지 못했다. 거조암 영산전은 시대적으로 중요한 유구일 뿐 아니라, 형태적으로 다른 고려시대 건물과 차이가 난다. 이 건물은 7칸의 거대한 정면을 가졌지만 측면도 3칸으로 두꺼워 두툼한 외관을 가지며, 무엇보다도 넓고 높은 내부공간이 특색이다. 정면에는 중앙칸에만 두꺼운 나무 판장문이 달렸고, 다른 칸들에는 가로로 길게 고정된 불박이 살창을 달았다. 정면 모두에 창호지 문들을 단 일방적인 불전 건물들과는 전혀 다른 외형이다.

인내는 창고 또는 장당건물이었던 것이 사찰의 규모가 줄어들면서 불전으로 바뀌어 가는 추경된다. 어쨌든 귀중한 고려시대 건물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건축 공부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다.

"필요성 공감"...문의 쇄도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스님 군법사 직장인등 책보시·헌금 밝혀 본사 불서 목록작성·관리SW 개발 진행

본지가 지난 3월부터 펼치고 있는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캠페인에 대한 문의전화와 이메일이 잇따르고 있다. 캠페인에 동참할 뜻을 밝힌 계층도 스님에서부터 직장인, 청년, 군법사 등까지 다양하다. 그동안 사찰에 도서실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으나 누구도 선뜻 추진하지 못해 누락돼 있던 '도서 갈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반응으로 분석된다.

동참자들의 문의 내용은 책이나 책값을 보시하거나, 사찰도서실 개실을 희망하는 것, 울산 소연성취사 주지신무스님은 "현재 4천여권의 도서가 있으나 분류 등의 방법을 몰라 방치되고 있다. 도서실이 개설될 경우 불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도서실 개설 협조를 요청했다. 제주 김성대씨와 경기도 부천 유은채씨를 비롯 개인별로도 사찰도서실이 개설될 경우 적극 돕겠다고 나섰다. 이들은 주로 '가정의 책을 사찰로 보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적으로 사찰에 도서를 보내겠다는 발의는 책을 통해 불교의 미래를 밝혀 보려는 '작은 등대'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전국의 사찰과 단체 불자들의 도서실 개설을 희망하고 도서 보시를 하겠다는 문의도 계속되고 있다.



◇본사 전자정보실은 원활한 도서관리를 위해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각 종단 '도서실 만드자' 동참

태고·천태·관음종 등 전국사찰에 공문 진각종 통리원 문고 계획...심인당 125곳도

이번 캠페인에 대해 교계 주요 종단들도 그 취지에 공감, 각 교구 및 사찰들에 대해 캠페인 동참을 촉구하고 나설 계획이다. 태고종은 이날 말까지 전국 19개 교구에 공문을 보내고 이 기회에 사찰도서실을 만들어 새로운 신행풍토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총무원에 공문발송에 앞서 종단기관지인 '한국불교'를 통해 이번 캠페인 내용을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정지상 총무원장은 "현대불교신문이 벌이고 있는 이번 캠페인은 새로운 신행행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천태종도 곧 전국 각 사찰에 공문을 발송, 이번 캠페인의 취지를 알리고 적극적으로 동참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진각종 역시 이날 말까지 6개교구 1백25개 심인당에 공문을 발송하고, 캠페인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통리원은 이번 기회에 통리원에 문고를 설치해, 지역 포교와 종단홍보에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수립, 검토에 나섰다. 문화사회국장 원명정장은 "책 읽는 풍토야말로 21세기 불교의 디딤돌인만큼 캠페인을 계기로 우리 종단도 불서읽기에 대한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음종은 이날 20일까지 1차로 이번 캠페인의 취지를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고,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신도들에게 이번 캠페인에 적극 동참할 것을 권유할 계획이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읽은불서·새책 헌금씩 절로 보내자

현대불교신문은 올 한해 동안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월1회 기획기사를 통해 도서실과 불서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서실 만들기·운영에 대한 상담을 합니다. 아울러 도서실 만들기를 구체적으로 돕기 위해 '우리절에 불서 보내기' 운동도 펼칩니다. 모든 불자들이 다 읽은 불서 또는 새로 나온 불서 헌금씩을 나누는 절에 발송할 한다면 많은 절들이 도서실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주지스님을 비롯 교계인사, 신행단체, 불자 여러분이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 △ 동참안내: ① 도서실 만들기에 뜻이 있는 주지 스님들은 본사 캠페인팀과 상담해 주십시오. ② 불자 여러분은 소속 사찰에 읽은 책 또는 새 책을 보내거나 본사 캠페인팀과 법공양을 의논하십시오.
- △ 상담전화: (02)737-8881 출판부장
- 후원: 조계종 포교원,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 협찬: 계종 출판사(사찰도서실 법공양 불서 30% 할인)

현대불교신문사

사찰등(燈) 장엄불사 -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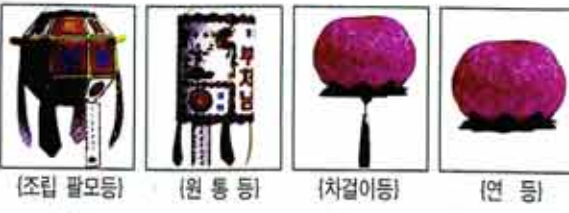
연꽃잎 제조특허(특이 제 122168호)/필극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의 의정등록 디수 보유업체

"종이 팔각등과 혼돈하지 마십시오" 100% 재활용 재질 사용

연등규격(지름) : 6.5cm, 8.5cm, 10.5cm, 13cm, 17cm, 30cm(대등), 실크등, 공단등



◀연꽃잎 제조 특허 연등
천덕의 연등들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① T자형 전선 제작, 판매합니다

연등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대폭 인하 납품하여 드리겠습니다.

▶인등

- ※ 각종 인등도 주문제작합니다.
- ※ 천불전 조성합니다.

■ 천덕연등 장엄사찰
조계사(서 울) 을주사(화성군) 금산사(김제) 선본사(팔공산) 동화사(팔공산) 깃바위(광주) 악천사(제주) 봉선사(남양주) 문주사(화성군) 그외다수

■ 법당 1년등 설치 전문업체

T자형 케이블 전선 생산, 반영구적 보전, 고정형 설치, 분리형 설치
원하시는 사찰에는 견본등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장엄등을 설치할 사찰은 저희들이 직접 방문하여 등개수 및 설치위치를 조언하여 드립니다.

제작 및 설치문의

☎ 0347)792-6288, 794-4055 / FAX 0347)792-6288 경기도 하남시 손궁동 180-1 천덕 연등제작사 대표 김기찬 합장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게 가득 채워 집안과 자연이 접어 들어오는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 소재
· 팔 개 고급나무 조각 목판 필각형
- 만다라: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가림처리
- 규격: 450cm x 450cm

◎ 보급가 : ₩ 300,000 ⇒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성지관음회 (회장 배진)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찰한 기운을 수 받고 불경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악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경쾌하게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역할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액의 양이 완전히 차이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 본 집에서는 방마다 찾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액 차단 실험은 2명의 수액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험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의 선물·생일선물·기념품·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